

개화기 신문·잡지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와 파생어

신 중 진*

<목 차>

- | | |
|-----------------------|-------------|
| I. 서론 | 2. 접미사와 파생어 |
| II. 개화기 명사 파생 접사와 파생어 | 1) 파생 접미사 |
| 1. 접두사와 파생어 | 2) 접미 파생어 |
| 1) 파생 접두사 | III. 결론 |
| 2) 접두 파생어 | |

【요 약】

이 글은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시사성이 높고 신조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소개하고, 그 파생어를 가급적 많이 예시하고, 어휘적 특징이 파악되는 대로 언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문·잡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신문·잡지는 시사성이 생명이다. 이런 점에서 개화기 신문·잡지는 어떤 다른 자료보다도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인 셈이다. 개화기 신문·잡지에는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온 어휘뿐만 아니라 차용어를 포함한 신조어들도 비일비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전화기, 증형거/증견거, 증동거, 화륜선, 비행선’ 등의 어휘는 개화기 공간의 어느 누구도 피할

*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수 없는 문명충격을 開化期人에게 가한 신조어들인데, 신문·잡지는 이들을 놓치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글은 1920년에 간행된 『朝鮮語辭典』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 개화기의 시사성이 높은 접두사로 ‘양(洋)-, 신(新)-’을 소개했고, 접미사로는 ‘-인(人), -원(員), -비(輩), -자(者), -질, -양(洋), -장(場), -세(稅), -금(金), -비(費), -령(令), -서(書), -기(機), -지(紙), -경(鏡), -업(業), -디(地), -거(車), -환(丸), -선(船), -함(艦), -교(敎), -론(論), -권(券), -권(權), -력(力), -력(曆), -주의(主義), -식(式), -소(所), -당(黨), -계(契), -계(界), -절(節), -일(日), -회(會), -단(團), -가(歌), -가(家), -학(學)’ 등이 있다.

I. 서론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흔히 강화도조약(1876)부터 경술국치(1910)까지를 우리나라의 개화기로 본다. 그 기간 중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인 『漢城旬報』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국한문혼용체인바, 사실상 지식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차츰 ‘문명, 기화, 조유, 만민평등, 자주독립’ 등의 개념이 생기면서 시대정신이 ‘인민, 국민’을 대상으로 애국계몽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순국문체 신문의 필요성을 낳았다. 결과로 개화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기간 즉, 1896년에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탄생하였고, 1898년에 이르면 최초의 일간지인 『협성회회보』(훗날 『미일신문』으로 개호)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던 1904년, 1906년에 일제의 강압 속에서도 각각 『대한미일신보』, 『경향신문』이 발간되었다. 물론 1900년부터 1910년까지 간행된 순국문 월간잡지 『신학월보』도 이 시기에서 빼 수 없는 신문·잡지 자료이다(줄고, 2004:6-10).

신문·잡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신문·잡지는 시사성

이 생명이다. 이런 점에서 개화기 신문·잡지는 어떤 다른 자료보다도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인 셈이다. 개화기 신문·잡지에는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온 어휘뿐만 아니라 차용어를 포함한 신조어들도 비일비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전화기, 증형거/증전거, 증동거, 화륜선, 비행선’ 등의 어휘는 개화기 공간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명충격을 開化期人에게 가한 신조어들인데, 신문·잡지는 이들을 놓치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신조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시사성이 높은 명사 파생 접두사와 접미사를 소개하고, 그 파생어를 가급적 많이 예시하고, 어휘적 특징이 파악되는 대로 언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졸고(2004ㄱ)의 연구방법에 온전히 의존하여 개화기의 신문·잡지에서 고빈도 명사 어휘로 선정된 어휘를 대상으로 시사성이 높은 接詞를 확인하고, 확정된 접사를 키워드로 삼아 검색한 어휘를 파생어로 제시할 것이다!¹⁾

II. 개화기 명사 파생 접사와 파생어

1. 접두사와 파생어

1) 파생 접두사

근대국어 시기까지의 어휘와 비교해 봤을 때,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시사성이 높은 접두사로써는 ‘양(洋)-, 신(新)-’이 있다. 이 중에 ‘양

1) 이 글의 대상이 된 개화기 순국문체 신문·잡지는 다음과 같다(졸고 2004 ㄱ:6-10). 『독립신문』, 『협성회회보/미일신문』, 『대한미일신보』, 『경향신문』, 『(경향)보감』,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신학월보』.

(洋)-’은 일부 명사 어휘 앞에 교착해서 “서구식의, 서양에서 들어온”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신(新)-’도 일부 명사 어휘 앞에 교착해서 “새로운”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2) 접두 파생어

먼저 ‘양(洋)-’ 파생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ㄱ. 양약국, 양요리, 양우산, 양은전, 양의원, 양철통, 양짚물
 ㄴ. 양약, 양철, 양총
 ㄷ. 양복, 양옥, 양인, 양혜, 양화, 양목

(1ㄱ)은 ‘양(洋)-’ 파생어 중 3음절어이다. 개화기 공시태에서 ‘약국(藥局), 요리(料理), 우산(雨傘), 은전(銀錢), 의원(醫院), 철통(鐵桶), 짚물’이 어휘체계 속에 존재하는바, (1ㄱ)은 개화기에 새로 생긴 ‘양(洋)-’ 파생어의 좋은 예들이다. (1ㄴ)은 ‘양(洋)-’ 파생어 중 2음절어이다. 마찬가지로 ‘약(藥), 철(鐵), 총(銃)’이 개화기 공시태에 존재하므로 쉽게 IC분석을 할 수 있다. (1ㄱ, ㄴ)에서 확인되는 ‘양(洋)-’은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휘 형성소인 셈이다. 그러나 (1ㄷ)은 ‘양(洋)-’이 단어 형성의 구성소로 참여한 2음절어이다. 즉, ‘복(服), 옥(屋), 인(人), 혜(鞋), 화(貨), 목(木)’이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개화기 공시태에서 자립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IC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때의 ‘양(洋)-’은 한자어 구성소로 파악할 수 있다. 즉 (1ㄷ)은 단일어이다. 단어 형성의 보편성으로서 단일어가 합성어에 참여할 가능성이 합성어가 합성어에 참여할 가능성보다 높는데, 가령 (1ㄷ)의 ‘양목’은 ‘양목바지(洋木--), 양목치마(洋木--), 양목실(洋木-)’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사실도 (1ㄷ)이 다른 ‘양(洋)-’ 파생어들과 구별되는 단일어임을 말해 준다.

한편 접두사 ‘양(洋)-’은 ‘서양(西洋)’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개화기 신문·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위의 예들과 함께 문증된다.

- (2) 서양-료리/서양-요리, 서양-철통, 서양-인, 서양-철, 서양-총,
서양-목

또 개화기의 어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朝鮮語辭典』(1920)에서 ‘西洋’에 대한 부표제어들로 (2)의 ‘西洋木(서양목), 西洋人(서양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정보를 보면 각각 “略, 洋木”, “略, 西人, 洋人”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접두사 ‘양(洋)-’이 원래는 단일어 ‘서양’에서 절단(truclation) 현상이 일어나서 생긴 것임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신(新)-’ 파생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ㄱ. 신법률, 신사업, 신세계, 신협약, 신도약, 신공기, 신정신, 신지식,
신턴디, 신작로, 신기향, 신쇼설 ; 신학문新學問, 신국민新國民,
신대륙新大陸³⁾
ㄴ. 신식, 신구
ㄷ. 신건축하다. 신발명하다, 신기척하다, 신기향하다

(3ㄱ)은 ‘신(新)-’ 파생어 중 3음절어다. 개화기 공시태에서 ‘법률(法律), 사업(事業), 세계(世界), 협약(協約), 도약(條約), 공기(空氣)’ 등이 어휘체계 속에 존재하는바, (3ㄱ)은 개화기에 새로 생긴 ‘신(新)-’ 파생

2) ‘양(洋)-’에 대한 파생어와 파생관계 이외의 더 많은 언어사실은 김형철 (1997:200-3)에서 논의되었다.

3) 개화기 순국문 신문·잡지에는 어휘에 따라서 드물기는 하지만 한자를 노출시킨 경우도 있다. 아마 당시에는 해당 어휘가 꽤나 어려운 한자어이었던 듯하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어휘에 대해 이 글에서는 괄호 없이 해당 한자를 노출하도록 하겠다.

어의 좋은 예들이다. (3ㄴ)은 ‘신(新)-’이 단어 형성의 구성소로 참여한 2음절어이다. 즉, ‘식(式), 구(舊)’가 개화기 공시대에서는 자립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IC분석은 불가능하다. 특히 ‘식(式)’은 현대국어에서 단음절 자립 한자어로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줄고 2002), 개화기국어에서는 그 자립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3ㄴ)은 단일어인 셈이다. (3ㄴ)의 ‘신식, 신구’는 단일어인바, 합성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식총(新式銃), 신구학(新舊學), 신구력(新舊曆)’ 등이 그것이다. 접두사 ‘신(新)-’은 ‘양(洋)-’과는 달리 (3ㄷ)과 같이 ‘新X]N-하다’에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新)-’이 결합한 파생어의 [술어성] 때문에 ‘-하다’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어법은 현대국어에서는 (3ㄷ)뿐만 아니라 가령 ‘신공부하다, 신경영하다’ 등의 [술어성]을 상정할 수 있는 예도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 접미사와 파생어

1) 파생 접미사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시사성이 높은 접미사로는 ‘-인(人), -원(員), -비(輩), -자(者), -질, -양(洋), -장(場), -세(稅), -금(金), -비(費), -령(令), -서(書), -기(機), -지(紙), -경(鏡), -업(業), -디(地), -거(車), -환(丸), -선(船), -함(艦), -교(敎), -론(論), -권(券), -권(權), -력(力), -력(曆), -주의(主義), -식(式), -소(所), -당(黨), -계(契), -계(界), -절(節), -일(日), -회(會), -단(團), -가(歌), -가(家), -학(學)’ 등이 있다.

2) 접미 파생어

먼저 개화기 신문·잡지의 ‘-인(人)’ 파생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ㄱ. 간증인, 거간인, 거류인, 고발인, 고별인, 고빙인, 고쇼인, 공쇼인, 공회인, 관광인, 관리인, 관속인, 교회인, 구결인, 귀국인, 그리스도인, 금광인, 기독교인, 대성인, 동지인, 열교인, 령슈인, 만국인, 망명인, 매서인, 무죄인, 미던인, 발기인, 발의인, 발형인, 방조인, 방청인, 보증인, 보형인, 본교인, 본국인, 본방인, 본토인, 봉교인, 분매인, 분전인, 불교인, 사주인, 사회인, 상업인, 상등인, 상법인, 상속인, 성교인, 세례인, 소개인, 쇼관인, 슈공인, 신도인, 외교인, 외국인, 외방인, 외부인, 우등인, 원고인, 원매인, 원족인, 위명인, 유교인, 이방인, 일지인, 입교인, 입회인, 제작인, 전교인, 전도인, 전어인, 제작인, 중죄인, 증거인, 지스인, 첩장인, 청구인, 청원인, 추거인, 출석인, 타국인, 편집인, 피고인, 하등인, 학습인, 호상인, 황식인, 회식인, 디리인, 디슈인, 디언인, 디표인, 리왕인, 텅담인, 빅교인, 빅식인, 히관인, 히교인, 히동인 ; 간연인間然人, 간스인幹事人, 개테인個體人, 계승인繼承人, 미토인米土人, 지로인指路人, 탐보인探報人, 테대인體大人, 테쇼인體小人

- ㄴ. 그리스인, 대한인, 덕국인, 동양인, 로국인, 로마인, 미국인, 법국인, 비국인, 서반아인, 서양인, 아국인, 아랍인, 영국인, 유대인, 조선인, 청국인, 한국인, 한일인, 화란국인

(4)는 개화기 신문·잡지에 나타난 ‘-인(人)’ 파생어의 대부분이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쓰이지만, 사어가 된 경우나 북한어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다.⁴⁾ 가령,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4ㄱ)의 ‘리왕인(來往人)’은 오늘날 ‘왕래인(往來人), 왕래자(往來者)’에 대한 개화기 어휘이다. ‘빅교인(背敎人)’은 오늘날 ‘배교자(背敎者)’로 어휘대체되었다. 또 (4ㄱ)의 ‘미던인, 미토인米土人’ 등도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 또 이들은 신문·잡지의 문맥으로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다만 ‘미토인’은 “미국인”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⁵⁾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유의관계에 있고, ‘원고

4) 개화기의 ‘동지인(同志人)’은 오늘날 북한에서만 쓰이게 되었다.

5) “남아메리카 베네쭈얼나 오리노고에 흙 먹는 민족(土食民族)이 잇스니 헛마다 몇 돌 동안에는 진흙만 먹고 연명하며 또 오래곤 미토인米土人 비레

인’과 ‘피고인’은 반의관계에 있는 파생어이다. (4ㄴ)은 ‘國名-人’의 내적 구조를 갖는 파생어들이다. 이 중 ‘비국인’은 “벨기에인”을 의미한다⁶⁾

‘-원(員)’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간스원, 간호원, 검스원, 견습원, 경리원, 고문원, 공무원, 관방원, 교무원, 교섭원, 교회원, 기사원, 기지원, 도사원, 령과원, 명예원, 번역원, 별과원, 보고원, 보조원, 보좌원, 심판원, 은행원, 의무원, 전투원, 접대원, 조합원, 지사원, 지회원, 찬무원, 찬성원, 철도원/철도원, 축탁원, 출석원, 측량원, 탐보원, 통신원, 특과원, 파견원, 편증원, 회계원, 회사원, 스무원 ; 공스원公事員, 령수원領收員, 로쇠원老衰員, 명스원明事員, 장무원掌務員, 중의원衆議員, 집무원執務員

이 중에 ‘간스원(幹事員)’은 『독립신문』에서 나타난다. 개화기에는 ‘간스원’에 대해 유의어로 ‘간스’도 함께 쓰였는데, 관련 어휘 ‘간스원회, 간스회’도 신문·잡지에서 확인된다. ‘간호부(看護婦)’는 개화기에 이미 함께 쓰이던 ‘간호원(看護員)’의 유의어인데 현대국어 ‘간호사(看護師)’에 대한 개화기 신조어이다.

‘-비(輩)’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간세비, 간활비, 간홀지비, 간홀비, 거류비, 걸인비, 관리비, 관속비, 관예비, 관졸비, 광동비, 년쇼비, 노령비, 란류비, 란민비, 로복비, 말음비, 모리비, 무녀비, 무당비, 무례비, 무뢰비, 부상비, 사령비, 서기비, 소쇼비, 쇼인비, 순교비, 순검비, 순교비, 순사비, 시정비, 아동비, 아전비, 털도역부비, 역신비, 영록비, 옥졸비, 완고비, 원역비, 잡류비, 장스비, 접장비, 종인비, 직인비, 포교비, 포졸비, 하리비, 하속비, 하예비, 하인비, 협잡비, 흥역비, 더류비, 스령비, 피류비

와 풀썰희만 먹고 연명호고<경향보갑2:210>”

- 6) “이 대스가 십년 전의 북경 주임 공스로 잇다가 대스로 비국에(벨지아) 잇섯다더라<경향신문>”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인물 관련 명사로 ‘-비(輩)’ 파생 명사가 현대국어에 비하면 훨씬 더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6)의 예 중에 ‘모리비(謀利輩), 무뢰비(無賴輩), 쇼인비(小人輩), 시정비(市井輩), 장스비(--輩), 하인비(下人輩)’ 정도만 오늘날에도 쓰이나, 나머지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는 접미사 ‘-비(輩)’ 자체가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者)’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간선자, 간음자, 간택자, 개인측량자, 거슈자, 검술자, 격물학자, 결투자, 경계자, 경쟁자, 교회자/교회자, 관광자, 관람자, 관리자, 구람자, 구세자, 기복자, 기소자, 기초자, 기술자, 낙송자, 노동자, 농공상업자, 농업자, 능통자, 다복자, 당국자, 대표자, 동모자, 동정자, 동지자, 두령자, 라병자, 략뢰자, 려형자, 런루자, 령세자, 로동자, 류리걸식자, 망명자, 문학자, 박해자, 방관자, 방탕자, 방해자, 범법자, 범죄자, 법학자, 보국자, 보험자, 부상자, 불령자, 불신자, 불의자, 살인자, 선지자, 설립자, 설명자, 성테자, 소송자, 소유자, 쇼임자, 슈거자, 슈상자, 슈입자, 슈창자, 슈품자, 시험자, 신고자, 신교자, 신위자, 연구자, 연설자, 열심자, 예비자, 예언자, 우등자, 위당자, 위명자, 위선자, 위조자, 유공자, 유권자, 유세자, 유지자, 음모자, 응시자, 의뢰자, 인도자, 일등자, 전도자, 전무자, 전설자, 전습자, 정탐자, 조물자, 주리자, 중상자, 지도자, 지명자, 지원자, 진복자, 철학자, 청원자, 측량기술자, 측량업자, 측량자, 치명자, 턴문학자, 통치자, 파락자, 피란자, 합격자, 혐의자, 호교자, 호탕자, 혼비자, 환술자, 후각자, 후보자, 기혁자, 디세자, 디표자, 링답자, 스교자, 스병자, 스상자, 스제자, 스주자, 즈유자 ; 명증자明證者, 훼도자毀道者

이 중에 ‘열심자(熱心者)’는 “이는 춤 밟는 자 안하면 흐지 못홀 일이요 또 밟고도 열심자 안하면 능치 못홀 일이라<신학월보4:396>”에서 유일하게 문증된다. 관련 명사 ‘열심’은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개화기 국어에서는 자립 명사였다. 이런 사실은 “한씨의 권학호는 열심을 대단히 칭찬한다더라<1904대한미일신보>”, 이 세 사람이 열심과 굿셈으로

죽기를 두리지 아니하고<경향보갑1:160>”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심’이 ‘-하다’ 파생동사의 어간 일부로 참여하는 경우도 흔했음이 흥미롭다.⁷⁾ 한편 (7)의 예들과 ‘-인(人)’ 파생 명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의어 집합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인=관광자, 관리인=관리자, 동지인=동지자, 망명인=망명자, 방청인=방청자, 우등인=우등자, 위명인=위명자, 전도인=전도자, 디표인=디표자, 링담인=링담자’. 이들은 개화기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셈이다. 어떤 파생어가 新語이고 舊語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어쩌면 두 쪽 다 진원지가 다른 명사 어휘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한쪽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대체어휘로 바뀐 경우도 있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오늘날 ‘관광인(觀光人)’은 사어이며 ‘관광객’이 그 대체어휘이다. ‘관광자(觀光者)’는 현재 북한어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방청객, 방청인, 방청자’는 모두 유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고유어계 접미사인 ‘-질’에 의해 파생된 명사 어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 솔썩질, 형악질, 회학질, 회롱질, 호령질, 협잡질, 바나질, 불항당질, 썰내질, 편지질, 토호질, 토악질, 탐장질(貪贓-), 치직질, 충동질, 청축질, 즈위질, 저울질, 잠수질, 이간질/리간질, 양치질, 아당질, 싹흙질, 쓰레질, 스환질, 승강질, 솟굽질, 산양질, 삭음질, 방아질, 바느질, 무당질, 몽치질, 다름이질, 량반질, 락시질, 도적질, 도망질, 대퓰질, 대포질, 다름질, 노름질, 노략질, 거름질, 손가락질

7) “여러 학생들이 공부에 더욱 주의하여 열심하기로 동맹하였다 하니<1904 대한미일신보>, 강천명씨는 본대 주의 일에 열심함이 다른 사림에서 월등하여<신학월보4395>, 발서부터 십삼도 인민이 국채 보상에 열심하여 일변 돈을 내며<경향신문>” 개화기에 ‘열심하다’ 구문은 ‘NP1-이 NP2-에 열심하다’와 같이 자동사구문으로만 쓰였다.

현대국어 ‘-질’ 파생 명사의 생산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 중에 ‘저울질’의 경우, “**몹**음을 저울질하야 **싱각**이 **너그럽고** 의견이 **넓어** **싱각**하는 바가 더욱 먼지라<신학월보4:22>”에서 그 비유적인 쓰임도 찾을 수 있다. ‘**즈위질**’은 “**무자위**(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물을 **긴는 일**”을 의미한다.

‘-양(洋)’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오대양,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빙양, 남빙양

‘오대양(五大洋)’과 ‘대서양(大西洋), 인도양(印度洋), 태평양(太平洋), 북빙양(北氷洋), 남빙양(南氷洋)’은 부분-전체(part-total) 관계에 있다.⁸⁾ ‘-양(洋)’의 경우,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접두사 ‘양(洋)’-에 비해 덜 생산적이다. 이것은 ‘-양(洋)’ 파생 명사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場)’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가무장, 고시장, 공사장, 교련장, 기계장, 류치장, 모범장, 시험장, 어업장, 연극장, 연병장, 연설장, 연회장, 연희장, 영업장, 오예장, 운동장, 정거장, 제조장, 증역장(懲役場), 치명장, 투전入장, 회의장, 기항장

‘모범장(模範場)’은 “농상공업 분야에서 시찰이 필요할 만큼 모범적인 장소”를 이르는 개화기 어휘이다. ‘오예장(汚穢場)’은 오늘날의 ‘쓰레기장’에 대한 개화기 어휘이다. ‘치명장(致命場)’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 끝에 순교한 곳”을 이른다.

‘-세(稅)’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륙디는** **눈호여** 만국이 되고 **물은** **눈호여** 오대양과 수십 바다가 된지라 <1904대 한미일신보>”

- (11) 가옥세, 슈산세, 쌀전세, 젓갈세, 토디세, 광산세, 교군세, 군던세, 나루세, 담비入세/담비세, 도장세, 디단세, 디방세, 러각세, 무명잡세, 무역세, 사금세, 상선돈세, 소금세, 소득세, 수레세, 슈립세, 슈입세, 슈출세, 시장세, 연초세, 영업세, 원결세, 인력거세, 장슈세, 장스세, 주초세, 차入세, 화던세, 희관세 ; 포구세浦口稅, 푸쥬세庖廚稅, 향구세港稅

(11)을 통해 개화기의 세금품목의 일면을 알 수 있다.⁹⁾ 이들 어휘들은 ‘-세’와 같은 접미사와 통합하는데,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돈 관련 명사는 ‘-세(稅)’ 파생 명사뿐만 아니라 ‘-금(金), -비(費), -전(錢)’ 파생 명사도 있다. 한편 신문·잡지에서 한자를 노출시킨 경우는 해당 어휘가 신조어일 때인데, ‘푸쥬세庖廚稅’에서 한자를 노출시킨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포쥬(庖廚)’였던 말이 변해서 ‘푸쥬’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朝鮮語辭典』에서도 표제어 ‘푸쥬’에 “庖廚(포쥬)의轉”이라는 관련어 정보를 주고, 원말 표제어 ‘庖廚(포쥬)’에서 의미정보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화기에는 원말인 ‘포쥬’와 변한말인 ‘푸쥬’가 경쟁관계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문·잡지에 ‘포쥬’가 58번 출현하고, ‘푸쥬’가 13번 출현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개화기만 해도 원말인 ‘포쥬’가 더 우세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문·잡지는 드물게 변한 말일 때도 한자를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금(金)’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거익금, 경비금, 계약금, 고본금, 구제금, 구조금, 구출금, 국고금, 국채보상금, 기본금, 기부금, 던화료금, 도미금, 러비금, 레비금, 레비금, 리익금, 립환금, 모집금, 배상금, 별연금, 보상금, 보조금, 보증금, 보호금, 부당금, 부비금, 부의금, 부조금, 부출금, 비밀금, 사출

9) 세금 관련 어휘로는 2음절어인 ‘결세, 염세, 잡세, 지세, 포세’ 등이 더 문중된다.

금, 상랍금, 상여금, 상예금, 손히금, 소비금, 슈공금, 슈당금, 슈로금, 슈뢰금, 슈료금, 슈리금, 슈수료금, 식비금, 여비금, 연보금, 연조금, 예산금, 원조금, 월련금/월연금, 월보디금, 월세금, 월스금, 위로금, 위홀금, 유족금, 유지금, 은스금, 의무금, 의연금, 의조금, 일비금, 임치금, 입학금, 입회금, 자본금/즈본금, 저치금, 적치금, 존비금, 준허금, 진홀금, 찬성금, 차관금, 총계금, 표기금, 하스금, 학비금, 학즈금, 향지금, 회복금, 비상금, 인홀금

이들 ‘-금’ 파생 명사 어휘들은 현대국어에서 주로 ‘모으다’와 통합관계를 이루지만, 개화기에는 ‘모으다’보다는 ‘모집하다’와 더 잘 통합하여 쓰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고본금, 구홀금’이 개화기 신문·잡지에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또 ‘-금(金)’ 파생명사는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운영을 위해 징수하는 ‘돈’이다. 그래서인지 이들 어휘의 어간은 ‘-세’와 통합하는 예를 찾을 수 없다.

‘-비(費)’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3) 가스비, 거샤비, 건축비, 경상비, 경축비, 고용비, 고문관비, 공공스업비, 공관비, 광고비, 교량비, 교섭비, 교육비, 교접비, 교제비, 구조비, 구믹비, 군함비, 권장비, 급여비, 기찰비, 던보비, 등유비, 디방비, 량식비, 량자비, 려형비, 렉서비, 류거비, 류학비, 물품비, 방슈비, 방어비, 방역비, 번력비, 병원비, 보조비, 보험비, 복장비, 봉급비, 부설비, 상장비, 석교비, 설치비, 소슈비, 쇼모비, 쇼입비, 송덕비, 슈로비, 슈리비, 슈보비, 슈상비, 슈선비, 슈용비, 슈축비, 슈호비, 슈기비, 슈미비, 숙식비, 순검비, 식목비, 신건비, 신설비, 신축비, 약품비, 양복비, 연향비, 연회비, 영업비, 예방비, 예산비, 외교비, 외장비, 우테비, 운동비, 운반비, 위싱비, 위싱청결비, 유학비, 융복비, 의료비, 의식비, 의원비, 의학교비, 이장비, 인건비, 인쇄비, 일어학비, 입장비, 자선비, 장례비, 제조비, 전보비, 접디비, 정탐비, 제슈비, 제향비, 제스비, 죄슈비, 종두비, 주조비, 주찬비, 준턴비, 중건비, 중슈비, 지공비, 지품비, 진당비, 진홀비, 집도비, 차림비, 천복비, 철도비, 청결비, 출슈비, 측량비, 치도비, 치뢰비, 치료비,

치중병비, 칙량비, 탐정비, 털도비, 특별비, 포쇄비, 피복비, 하복비, 학교비, 학민비, 학즈비, 향용비, 해고비, 향샤비, 향슈비, 호상비, 호송비, 호위비, 호격비, 호쥬비, 화환비, 확장비, 환영비, 황실비, 회국비, 회환비, 휘철비, 기슈비, 기쵸비, 기축비, 미장비, 미향비, 스업비, 직관비 ; 식거비植炬費, 표민비漂民費

(13)을 통해 개화기의 다양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사어가 된 ‘식거비植炬費’는 밤에 임금이 나들이할 때에, 길 양쪽에 횃불을 늘어 세우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호상비(犒賞費)’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차려 먹이고, 상을 주는 비용을 말한다.

‘-령(令)’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계엄령, 관등봉급령, 단발령, 스립학교령, 학부령, 회산령, 경무령, 공부령, 군부령, 나라령, 모병령, 방곡령, 법률령, 법무령, 봉급령, 식발령, 인지령, 제한령, 진급령, 징병령, 퇴거령 ; 도령道令

(14)의 ‘계엄령(戒嚴令)’은 원래 대통령이나 군주가 국가 위기시에 선포하는 명령이다. 개화기 자료에서 한 번 출현하는데, 1909년에 간행된 『대한미일신보』의 외국 사정을 알리는 기사 “토이기 아다나 디방에는 계엄령을 반포하엿고”에서 확인된다. ‘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은 고종 32년(1895) 을미개혁 때에 제정한, 국가 관리에 대한 임금 규정이다. 이에 따라 칙임관을 4등급, 주임관을 6등급, 판임관을 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다. ‘단발령(斷髮令)’은 고종 32년(1895) 11월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이다. ‘도령道令’은 일제 강점기에 도지사가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관내 행정 사무에 관하여 낸 법규 명령이다.¹⁰⁾

10) 참고로 법률 관련 ‘-법(法)’ 합성 명사에는 ‘가옥세법, 감독법, 관세법, 광산법, 교육법, 군면법, 나라법, 년좌법, 노비법, 도량형법, 동양척식회사법, 런좌법, 로마법, 로인보호법, 매미법, 민적법, 변리법, 보안법, 부부법, 삼림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문서’를 뜻하는 ‘-서(書)’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5) 건의서, 검역서, 검참서, 결말서, 결의서, 계약서, 고발청원서, 권면서, 런명서, 리력서, 명령서, 명원서, 발명서, 변명서, 변호서, 변칙서, 보고서, 보안서, 보증서, 봉답서, 산림증명서, 샤과서, 샤직서, 셔약서, 선고서/선교서, 선도서, 선언서, 선전서, 설명서, 성명서, 신고서, 신청서, 약도서, 약정서, 예산서, 위임서, 의견서, 의당서, 익명서, 인증서, 일장서, 졸업서, 조약서, 조인서, 증거서, 증명서, 증약서, 지원서, 지취서, 진단서, 진술서, 진정서, 질문서, 질품서, 찬성서, 청구서, 청원서, 청유서, 청의서, 탄핵서, 판결서, 합동계약서, 합동서, 합방성명서, 헌고서, 헌의서, 활인서, 스유서, 스직서, 취지서

(15)에는 현대국어에서도 출현빈도가 높은 문서 관련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지취서(旨趣書)’는 ‘취지서(趣旨書)’의 유의어이다. 한편 ‘책’을 뜻하는 ‘-서(書)’ 파생 명사로 ‘교과서, 구약서, 만권서, 의가서, 지리서, 참고서 ; 격치서格致書, 유전서遺傳書’도 나타난다.

‘-기(機)’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법, 서양법, 선거법, 선박법, 소송법, 어업법, 연좌법, 오가작통법, 우테법, 월보법, 위성법, 조직법 조합법, 주세법, 진급법, 집행법, 징병법, 추증법, 출판법, 측량법, 치안법, 호적법, 혼인법, 화폐법, 환전법, 회계법, 회사법, 기화법’ 등이 문증된다. 한편 ‘방법’을 뜻하는 ‘-법(法)’ 파생 명사에는 ‘고학법, 구구법, 귀납법, 기도법, 농수법, 묘사법, 런설법, 미돌법, 방어법, 비평법, 상례법, 쇼독법, 연설법, 연역법, 예방법, 우두법, 위조법, 음식법, 전도법, 전스법, 절주법, 정결법, 제조법, 제스법, 종두법, 증명법, 진행법, 청결법, 니외법, 디우법’을 들 수 있다. 또 ‘법칙’을 뜻하는 ‘-법(法)’ 파생 명사로 ‘중력법重力法 LexGravium, 인력법引力法 LexAttractionis, 물리법物理法 LegesNaturae, 생리법生理法 LegesPhysiologicae, 화학법’을 들 수 있다.

- (16) 던어기, 던화기, 발동기, 스진기 ; 류성기留聲機, 비행기飛行機, 직포기織布機, 활동기活動機

이 중 ‘던어기(傳語機), 던화기(電話機)’는 유의어이며 ‘전어기, 전화기’로도 표기되는 일이 많았다. 개화기 신문·잡지에 9번 출현하는 ‘전어통(傳語筒)’도 이들과 유의어이다. 한편 군사용어 중에 ‘병장기(兵仗器); 쇠선기碎船器’처럼 ‘-기(器)’ 파생 명사도 보인다. 원래 ‘器’는 악기 따위처럼 어떤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고,¹¹⁾ ‘機’는 ‘兵器’였으나(송민 1999:131), 개화기에 오면 ‘器’는 ‘병기’의 의미를 하나 더 가지게 되고, ‘機’는 ‘근대화 이후에 서양 문명을 통하여 새로 알려진 고도의 과학적 장치’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朝鮮語辭典』의 ‘器械’와 ‘機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전에서 ‘器械’의 의미정보로 “兵器”를, ‘機械’의 의미정보로 “機械, 機器”를 삼았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器’와 ‘機’, ‘器械’와 ‘機械’는 동음이의관계에 있다(송민 1999: 136).

‘-지(紙)’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7) 견본지, 문풍지, 봉투지, 신문지, 인찰지, 전도지, 창호지

이 중 ‘신문지(新聞紙)’의 경우 일본에서 처음에는 news paper에 대한 번역어로 ‘신문지’가 쓰였기 때문에 개화초기 조선수신사들의 기록에는 ‘新聞紙’로만 나타난다. 그 후 한동안 ‘신문지, 신문’이 함께 쓰이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신문’으로 굳어졌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일어난 어휘변화가 국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다(줄고 2004 7:234).

‘-경(鏡)’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 근시경, 만리경, 망원경, 원시경, 천리경, 현미경

11) 개화기 신문·잡지에 보이는 ‘군악기(軍樂器), 반상기(飯床器)’는 ‘器’의 전통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내려온 예이다.

(18)의 ‘만리경(萬里鏡), 망원경(望遠鏡), 천리경(千里鏡)’은 유의어이며, ‘근시경(近視鏡), 원시경(遠視鏡)’은 ‘안경’의 하위어이다.

‘-업(業)’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9) 공장업, 광산업, 농공상업, 농공업, 농상업, 농수업, 데조업, 도슈업, 방적업, 상공업, 슈산업, 양잠업, 이스업, 장스업, 전도업, 직조업, 측량업, 솜립업, 헉스업 ; 디셔업代書業

이 중 ‘디셔업’의 경우, 『경향보감』에서 “문 디셔업代書業은 무엇이뇨 답 디셔업이라 흙은 늪의 위탁을 쓰라 문서를 디신 써주는 업을 닐옵이니라<경향보감4:325>”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디셔업’이 전문 직업명이었던 까닭이다.

‘-디(地)’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0) 건축디, 경작디, 공공디, 공원디, 관공디, 관유디, 국유디, 군용디, 근거디, 농작디, 목덕디, 민유디, 분묘디, 석탄디, 소유디, 시가디, 신민디, 신탄디, 조계디, 중립디, 진황디, 황무디, 기항디, 밭장디, 스유디

이 중에 ‘진황디(陳荒地)’는 ‘황무디(荒蕪地)’와 유의관계에 있다. ‘시가디(市街地)’는 행정구역 명칭인 ‘시(市)’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파생어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널리 쓰이는 행정구역 명칭인 ‘군(郡), 읍(邑), 리(里), 동(洞)’은 개화기에 존재했으나, ‘시(市)’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잡지에 쓰인 외국지명 ‘가사푸랑가 시, 북미 가주프레노 시, 덕국 부레멘 시’ 등을 통해서 ‘시(市)’의 개념은 개화기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가디’는 개화기 신조어임이 틀림없다.

‘-거(車)’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1) 독륜거, 복형렬거, 인력거, 자형거/즈형거, 직통렬거, 화륜거, 즈던거; 즈동거自動車

이 중 ‘자형거/즈형거, 즈던거’는 유의어이다. ‘화륜거’는 오늘날의 “기차/열차”이며, ‘복형렬거, 직통렬거’는 오늘날 “열차(列車)”의 종류인 셈이다. ‘즈동거’는 오늘날의 ‘자동차’를 말한다. ‘-거(車)’ 파생어는 육상교통수단일 때 붙는 파생 접미사이다.

‘-환(丸)’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2) 다ㄹ천환, 명양환, 목중천환, 미장환, 박어환, 박이환, 비후환, 빈후환, 비후환, 수ㄹ환, 장문환, 현히환

현대국어에서 ‘배’ 이름에 ‘-호’가 주로 결합하는 것과 달리 개화기에는 ‘-호’보다는 ‘-환’이 결합한 경우가 많았다.¹²⁾ ‘-환’이 배 이름에 붙게 된 경위는 과문한 탓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어의 ‘-丸’에서 차용된 것임은 분명하다. 오늘날에는 배 이름에 ‘-환’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환’은 사라진 차용 파생 접미사인 셈이다.

‘-선(船)’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3) 경비선, 고용선, 덩병선, 디뢰포선, 방비선, 비행선, 삼판선, 석탄선, 슈뢰선, 슈뢰포선, 슈송선, 순라선, 순량선/순양선, 순히선, 식물선, 어망선, 어용선, 어작선, 어치선, 연락선, 우테선, 우편선, 운반선, 운송선, 유람선, 조계선, 철갑선/털갑선, 해륜선, 화륜선

이 중에 ‘비행선(飛行船)’은 ‘비행기’와 유의관계에 있는 개화기 신조어이다. ‘어용선(御用船)’은 ‘임금이나 왕실에서 쓰는 배’를 이르는데, 현

12) 대체로 선박의 이름이 외국어일 때는 ‘-호’를 붙였고, 한자어일 때는 ‘-환’을 붙였던 듯하다. “기선 우쓰트반 호, 군함 세치쓰 호, 영국군함 쏘로라 호, 잠수정 푸리유푸오이스 호”.

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死語이다. 한편『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우테선(郵遞船)’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개화기에 ‘우테선’과 ‘우편선(郵便船)’이 유의어로 경쟁관계에 있었다가 오늘날 ‘우편선’이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된다.¹³⁾

‘-함(艦)’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 구축함, 순양함, 순라함, 전투함, 털갑함

(24)의 예들은 ‘군함’의 하위어들이다. 순양함(巡洋艦)’은 (23)의 ‘순량선/순양선(巡洋船)’과 유의어이이고 오늘날에는 ‘-함’ 계열만 살아 있다. ‘순라함(巡邏艦)’은 (23)의 ‘순라선(巡邏船)’과 유의어이며 오늘날에는 ‘-선’만 살아 있다. ‘털갑함(鐵甲艦)’은 (23)의 ‘철갑선/털갑선(鐵甲船)’의 유의어이다. 오늘날에는 ‘-선’ 계열과 ‘-함’ 계열이 모두 살아 있으나 ‘-선’ 계열은 남한어로, ‘-함’ 계열은 북한어로 인식되고 있다. ‘군함’의 딸 하위어인 ‘잠수함(潛水艦)’은 문증되지 않는다. 다만 ‘잠수艇(潛水艇)’이 문증된다.

‘-교(敎)’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5) 기독교, 천주교, 회회교, 태극교(大極敎), 증산교(甞山敎), 인도교, 복타교, 시턴교(侍天敎), 백백교(白白敎), 대동교(大同敎), 공조교, 공명교

‘회회교(回回敎)’는 오늘날의 ‘이슬람교’를 말한다. 회회교의 경전을 개화기에 ‘과연경(1회 출현)’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코란’을 의미한다. 신문·잡지에 ‘고란경(8회 출현)’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인도교(印度敎)’

13) 참고로 ‘줄’의 의미인 ‘-선(線)’ 파생 명사로는 ‘경위선(經緯線), 둥기선/전기선/전기선, 던보선, 던화선’이 문증되고, ‘길’의 의미인 ‘-선(線)’ 파생 명사로는 ‘경원선, 털도선’가 문증된다.

와 ‘복타교(伏陀敎)’는 유의어이며, 오늘날의 ‘힌두교’를 말한다. ‘공즈교’와 ‘공딩교’도 유의어이다.

‘-론(論)’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6) 경축론, 공화론, 교육론, 다신론, 독립론, 명혼론, 민권론, 불평론, 속죄론, 숙명론, 시세론, 식리론, 실테론, 양력론, 예비론, 우두론, 우상론, 우주즉신론, 유물진화론, 유신론, 음력론, 인종다원론, 전기론, 정치론, 준형론, 즉신론, 진화론, 합방론, 화폐론, 기벽론, 기화론 ; 결국론結局論, 교회론敎會論, 그리스도론基督論, 덩명론定命論Determinismus, 무신론無神論Atheismus, 실험론實驗論Positivismus, 유물론唯物論Materialismus, 인류론人類論, 주신론主信論, 주전론主傳論Traditionalismus, 증거론證據論

개화기 신문·잡지에서는 ‘-론’ 파생어들을 상당히 고급 전문 어휘로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해당 어휘에 한자를 노출시키거나 드물게 번역 원어까지 병기한 경우가 다른 파생어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 번역 원어까지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권(權)’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7) 경찰권, 관할권, 광업권, 남녀권, 대한민국권, 독립권, 동등권, 보호권, 부결권, 부설권, 부인스권, 상형권, 상업권, 선거권, 소유권, 쇼치권, 슈공권, 시종권, 악당권, 어업권, 인허권, 자유권, 전매권, 정치권, 조계권, 종교권, 치외권, 토벌권, 통치권, 투표권, 특립권, 특허권, 평등권, 포설권, 피선거권, 항형권, 스유권, 생명권, 즉유권, 즉치권, 지정권, 지판권, 치굴권, 형명권

개화기에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팽창되었던 듯, 신문·잡지에 ‘-권’ 파생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특히 ‘등등권(同等權), 자유권(自主權), 투표권(投票權), 평등권(平等權), 생명권(生命權), 즉유권(自由

權)’ 등을 통해 개화기에 민주주의나 천부인권에 대한 사상이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를 의미하는 ‘-권(券)’ 파생 명사로는 ‘경품권, 고본권, 은형권, 입장권, 주식권 ; 려형권旅行券’ 등이 문증된다.

‘-력(力)’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8) 감각력, 감동력, 감화력, 강장력, 강제력, 교육력, 기억력, 단테력, 단합력, 연합력, 물질력, 사회력, 압제력, 운동력, 유세력, 인지력, 인내력, 전귀력, 전투력, 즉각력, 증귀력, 지혜력, 성식력, 조강력, 조연력 ; 개념력概念力, 분화물력分化物力, 의식력意思力Voluntas, 척극력刺戟力,¹⁴⁾ 초성력超性力, 활동력活動力Activitas, 지단력裁斷力

한편 ‘-력(曆)’ 파생 명사로는 ‘그리고리력, 물리력, 신구력, 음양력, 태음력, 태양력’이 문증된다.

‘-주의(主義)’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9) 계급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문명주의, 문호지방주의, 락턴주의, 염세주의, 의식고슈주의, 혁명주의, 계급주의, 국가주의, 데국주의, 전테주의, 조유주의 ; 주리주의主理主義Rationalismus, 견인주의堅忍主義Stoicismus, 무돈착주의無頓着主義Indifferentismus

‘혁명주의’는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1번 추출되는 예이다. ‘무돈착주의(無頓着主義)’는 원리나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결과에만 신경 쓰는 현상, 더 나아가 전문어로서 천주교/기독교의 깊은 원리는 알아보

14) “비컨대 포슈가 총을 노홀시 덤불 뒤헤 안즌 사를을 보지 못호고 상해호 매 이에 피츠간 알지 못호고 익미히 살해호엿스니 우연히 상해호 것이라 호나 이도 또호 조물자의 임의 덩호신 바 척극력(刺戟力)의 결과 | 니라 <경향보갑2:321>”

지도 않고 맹목적을 비판하는 풍조를 의미하는 개화기 신조어이다. 한편 ‘민주’의 개념은 개화기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민주주의’는 문증되지 않는다. ‘락천주의(樂天主義)’와 ‘염세주의(厭世主義)’는 반의관계에 있는 파생어이다.

‘-식(式)’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0) 가례식, 경축식, 기림식, 락성식, 발회식, 방학식, 상량식, 슈도지통식, 슈업식, 슈여식, 슈묵식, 장례식, 제막식, 졸업식, 진급식, 창립기념식, 추도식, 친임식/친림식, 하기방학식, 기관식, 기교식, 기당식, 기사식, 기업식, 기원식, 기장식, 기청식, 기통식, 기학식, 기회식, 디관식 ; 시복식諡福式Beatificatio, 시성식諡聖式Canonizatio, 진슈식進水式

이중에 ‘경축식(慶祝式), 방학식(放學式), 상량식(上梁式), 졸업식(卒業式), 기교식(開校式), 기통식(開通式)’은 각각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문증되는 ‘경축례식(慶祝禮式), 방학례식, 상량례식(上樑禮式), 졸업례식(卒業禮式), 기교예식(開校禮式), 기통례식(開通禮式)’과 유의어이다. 이것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식(式)’ 파생 명사의 형성 기제를 보여준다. 즉 원래 ‘xx-례식’처럼 합성어가 널리 쓰였으나, ‘xx-례식’이 점점 절단(truncation) 과정을 겪으면서 ‘xx-식’ 파생 명사가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전에 ‘경축식, 방학식, 상량식, 신흠식, 졸업식, 기교식, 기통식’에 대한 표준어만 등재되어 있다.

‘-쇼(所)’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1) 감독쇼, 감시소, 감옥쇼, 강습소, 건축소, 검역쇼, 경무소, 경비쇼, 경찰쇼, 공세쇼, 공업쇼, 공의쇼, 공장소, 공진소, 공회쇼, 관리소, 관상소, 관측소, 관포쇼, 광업소, 교당쇼, 교변쇼, 교변소, 교본쇼, 교습쇼, 교전쇼, 교환쇼, 군기쇼, 군무쇼, 금광소, 금융부지소, 기계소, 기도쇼, 기로쇼, 농상소, 데쇼, 도회쇼, 독련소, 묘사소, 묘약쇼, 둔병

소, 연습소, 로동소, 류숙소, 리발소, 리용소, 만인소, 명원소, 모집소, 목역소, 민회소, 발매소, 발행소, 방역소, 병참소, 보험소, 부석소, 분건소, 분파소, 사금소, 사무소, 산역소, 상무소, 사령소, 상회소, 섬무소, 세무소, 숙위소, 슈역소, 슈험소, 시은소, 시험소, 식조소, 양성소, 양잠소, 업무소, 역장소, 연구소, 연탄소, 염민소, 영건소, 영접소, 용정소, 우검역소, 우장소, 우체소, 우편계립소, 우편교환소, 우편소, 우편취급소, 월보소, 은결소, 은형소, 의병소, 인쇄소, 인찰소, 입직소, 작잠소, 전도소, 격치소, 전도소, 전습소, 전화소, 접슈소, 정리소, 정무소, 정미소, 정지소, 정비소, 제약소, 제작소, 제조소, 조선소, 조합소, 조계소, 종건소, 종계소, 종두소, 주당소, 주변소, 주점소, 주전소, 주지소, 중건소, 중견소, 중계소, 중의소, 지부소, 진렬소, 진만소, 진민소, 진복소, 진슈소, 진홀소, 창립소, 창의소, 청결소, 천사소, 철도소, 총합소, 취급소, 취흡소, 출장소, 치도소, 치료소, 치목소, 털도소, 파출소, 판미소, 향약소, 헌병소, 화장소, 활인소, 활판소, 회계소, 회의소, 휴계소, 휴식소, 디셔소, 미탄소, 스투소, 즈렬소, 즈명소, 즈인소, 지판소, 취급소, 취반소, 취흡소 ; 정구소停柩所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소(所)’ 파생어가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 그만큼 개화기 공시태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접미사가 ‘-소(所)’이다.

‘-당(黨)’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2) 개진당, 공화당, 국립당, 국민당, 급진당, 급진인민당, 남북당, 농무당, 농민당, 덩부당, 덩치당, 도적당, 독립당, 로동당, 로쇼론당, 매국당, 무정부당, 민권당, 민슈당, 반터당, 보슈당, 보호당, 불평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소년당, 슈구당, 슈적당, 역적당, 인민당, 자유당, 정부당, 정치당, 중앙당, 진보당, 청년당, 통일당, 합중당, 허무당, 혁명당, 화적당, 황태당, 흑괴당, 기진당, 기화당, 비일당, 익국당, 즈유당, 즈슈당 : 기혁명당改革黨

대부분이 개화기 국내외에 존립하던 ‘정당’의 하위어들로 정치 전문 용어로 볼 수 있으나 ‘도적당(盜賊黨), 매국당(賣國黨), 반터당(反對黨),

불평당(不評黨), 슈적당(讎敵黨), 역적당(逆賊黨), 화적당(火賊黨)’ 등은 “그러한 무리”의 의미를 갖는 일반어이다.

‘-계(界)’ 과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3) 공업계, 교육계, 농업계, 로동계, 통상계, 동물계, 상업계, 서학계, 식물계, 실업계, 어업계, 유림계, 정당계, 정치계, 청년계, 종교계 ; 턴연계天然界, 환상계幻像界, 즈연계自然界

개화기의 ‘-계(界)’는 “세계” 혹은 “분야”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이다. 현대국어에서는 행정명에 붙어서 “경계”의 의미를 갖기도 하나(도계(道界), 군계(郡界), 시계(市界)) 개화기 신문·잡지에서는 그러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¹⁵⁾

‘-절(節)’ 과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5) 건원절경축절, 계턴괴원경절, 공화절, 기념절, 괴원경절, 독립절, 만수성절, 상원절, 오순절, 중앙절, 천츄경절, 천츄절, 츄분절, 탄신절, 턴장절, 기국괴원절

‘건원절(乾元節)’은 1908년부터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탄생(2월 28일)을 기념하던 날이다. ‘계턴절’은 오직 1번 추출되었는데, 오늘날 개천절

15) 한편 “모임”의 의미를 갖는 ‘계(契)’는 개화기에도 자립어였다. 그 합성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4) 동원계, 만인계, 부인계, 산통계, 잡박계, 초상계, 한량계, 향약계, 흥학계

개화기의 ‘계(契)’ 합성 명사들은 “슈원군 룽쭈 사느 서상춘이가 향약계를 설시하고<독립신문>, 니각 법제국장 유성준 씨와 고등관 모모씨가 받기 하고 동원계를 조직하였다느디<1909대한미일신보>”와 같이 ‘설시하다’ 혹은 ‘조직하다’와 언어관계(collocation)를 이룬다.

(開天節)의 오표기로 추정된다. ‘만수성절(萬壽聖節)’은 대한제국 때에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던 날이며,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제정하였다. ‘천추경절(千秋慶節)’은 대한제국 때에 황태자의 생일을 기념하던 날이며, 광무 원년(1897)에 정하였다. ‘턴장절(擅場節)’은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¹⁶⁾

‘-회(會)’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6) 가궤회, 강습회, 강연회, 결스디, 경축회, 계삭회, 공구회, 공업회, 관민공동회, 관민연회, 국문연구회, 기념원유회, 농무회, 농부회, 농총회, 다과회, 담화회, 노동회, 만민공동회, 만찬회, 발기회, 보명녀교육회, 복음회, 석가여리회, 선교회, 오찬회, 운동회, 원유회, 원족회, 위원회, 의학강의회, 일신회, 잠업회, 정당회, 청년회, 친목회, 토론회, 특별위회, 학우회, 한국중앙농회, 협의회, 흥업회, 근친회, 스경회, 즈션회 ; 박람회博覽會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열린 민중 대회로 잘 알려진 ‘만민공동회’의 유의어이다. 한편 ‘복음회(福音會), 스경회(查經會)’는 천주교/기독교 전문 용어들이다. ‘복음회’는 현대국어에서도 널리 쓰이는 어휘이며, ‘스경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을 의미한다.

‘-단(團)’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7) 괴자단, 방역단, 시찰단, 쓰름단, 연설단, 유세단, 조합단, 청년단, 흥공단, 흥스단, 즈본단, 즈위단 ; 의화단義和團

16) 참고로 ‘-일(日)’ 파생 명사로 ‘경절일, 구세주탄일, 구주탄일, 동명일, 명절일, 부활일, 성교일, 성탄일, 안식일, 종목일, 주탄일, 휴가일’ 등이 문중된다.

한편 개화기에 또 다른 ‘-단’ 파생 명사가 있는데, “학질에 유명이
신호흔 보화단이라 호는 약을 철물교 아리 남편 첫골목 드러 서서 위
성관이라고 패되흔 집에서 발뭇호고<미일신문>, 근일 류형호는 괴질에
디호야 보명슈와 회성단을 새로 발명호였는디<1904대한미일신보>”에서

‘-가(歌)’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8) 개선가, 격양가, 경축가, 권주가, 귀향가, 동심가, 상봉가, 송별가, 찬미
가, 찬송가, 철도가, 철로가, 축슈가, 춘향가, 태평가, 홍보가, 익민가

‘격양가(擊壤歌)’와 ‘태평가(太平歌)’는 유의어이고, ‘상봉가(相逢歌)’,
‘송별가(送別歌)’는 반의어이다. 개화기에 유의관계에 있는 ‘찬미가(讚美
歌)’와 ‘찬송가(讚頌歌)’는 ‘찬미(讚美)’와도 유의관계에 있었다.¹⁷⁾ ‘찬미’
가 ‘찬미가, 찬송가’의 의미였음은 언더우드의 『한영즈던』(1890)에서 천
주교/기독교 관련 어휘 중에 “Hymn. n. 성영, 창, 찬미, 찬미호는노래.”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이병근 2001: 17).

한편 ‘-가(家)’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9) 개혁가, 격물가, 격치가, 공업가, 교혹가, 도덕가, 도학가, 룡업가, 명
문가, 미술가, 번역가, 법률가, 법학가, 사업가, 상업가, 세도가, 세력
가, 소설가, 실업가, 연구가, 유세가, 은행가, 의술가, 자선가, 자본
가, 장식가, 전도가, 정치가, 종교가, 탐험가, 편식가, 화학가, 회계
가, 스업가, 직산가, 지상가, 지정가 ; 력스가歷史家, 리학가理學家,
문장가文章家Scriptor, 저술가著述家, 철학가哲學家

이 중에 ‘명문가(名文家), 세도가(勢道家), 지상가(宰相家)’의 ‘-가(家)’

17) “회당에 모혀 하느님의 추슈 감사호는 깃분 찬미로 노래호시고<신학월보
1:5>, 십일 상오 구덤 종에 다시 모히여 구십오 찬미를 노래호고 목스
뽕커씨가 마태복음 십팔장을 넘고<신학월보1233>”

는 “그러한 가문”의 의미이며, 나머지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이다.

‘-학(學)’ 파생 명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0) 경리학, 경무학, 경물학, 경찰학, 공업학, 공장학, 광산학, 교도학, 교섭학, 금수학, 기계학, 농공상학, 농리학, 농림학, 농업학, 견보학, 동물학, 동식학, 디리학, 디지학, 론개학, 룡업학, 룡군학, 리과학, 부국학, 산림학, 산술학, 사회학, 상리학, 상무학, 상업학, 성리학, 수학, 슈신학, 식물학, 심리학, 심성학, 약물학, 우테학, 위싱학, 인류학, 인종학, 전문학, 전리학, 전문학, 축성학, 측량학, 척산학, 턴문학, 턴주학, 털노학, 항히학, 해군학, 협잡학, 형률학, 스관학 ; 격치학格致學, 경제학經濟學, 고성물학古生物學, 뇌상학腦相學, 두개골상학頭盖骨相學, 디질학地質學Geography, 론리학論理學, 리지학理財學, 박물학博物學, 물리학物理學Physica, 법률학法律學, 비평학批評學, 우주학宇宙學, 정치학政治學, 제조학製造學, 화공학畫工學, 싱리학生理學Physiologia, 싱물학生物學

개화기 신문·잡지에서도 ‘-론(論)’ 파생어만큼이나 ‘-학(學)’ 파생어도 고급 전문 어휘로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해당 어휘에 한자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다른 파생어들에 비해 많다. 경우에 따라서 번역력 원어까지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문 관련 이음절어로 ‘공학, 광학, 기학, 농학, 리학, 병학, 사학, 상학, 수학, 신학, 의학, 철학, 턴학, 화학’ 등이 문증된다.

Ⅲ. 결론

이 글은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시사성이 높고 신조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소개하고, 그 파생어를 가급적 많이 예시하고, 어휘적 특징이 파악되는 대로 언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글에서 개화기의 시사성이 높은 접두사로 ‘양(洋)-, 신(新)-’을

소개했고, 접미사로 는 ‘-인(人), -원(員), -비(輩), -자(者), -질, -양(洋), -장(場), -세(稅), -금(金), -비(費), -령(令), -서(書), -기(機), -지(紙), -경(鏡), -업(業), -디(地), -거(車), -환(丸), -선(船), -함(艦), -교(敎), -론(論), -권(券), -권(權), -력(力), -력(曆), -주의(主義), -식(式), -소(所), -당(黨), -계(契), -계(界), -절(節), -일(日), -회(會), -단(團), -가(歌), -가(家), -학(學)’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두사 ‘양(洋)-’은 ‘서양(西洋)’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개화기 신문·잡지에는 ‘서양요리, 양요리’, ‘서양철통, 양철통’, ‘서양인, 양인’, ‘서양철, 양철’, ‘서양총, 양총’, ‘서양목, 양목’이 각각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또 개화기의 어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朝鮮語辭典』에서 ‘西洋’에 대한 부표제어들로 (2)의 ‘西洋木(서양목), 西洋人(서양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정보를 보면 각각 “略, 洋木”, “略, 西人, 洋人”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도 접두사 ‘양(洋)-’이 원래는 단일어 ‘서양’에서 절단(truclation) 현상이 일어나서 생긴 것임을 말해 준다. 접두사 ‘신(新)-’은 ‘양(洋)-’과는 달리 (3ㄷ)과 같이 ‘新X]N-하다’에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新)-’이 결합한 파생어의 [술어성] 때문에 ‘-하다’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어법은 현대국어에서는 (3ㄷ)뿐만 아니라 가령 ‘신공부하다, 신경영하다’ 등의 [술어성]을 상정할 수 있는 예도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개화기 신문·잡지에서 인물 관련 명사로 ‘-비(輩)’ 파생 명사가 생산적이었다. 이 글의 예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면, ‘모리비(謀利輩), 무뢰비(無賴輩), 쇼인비(小人輩), 시정비(市井輩), 장스비(--輩), 하인비(下人輩)’ 정도만 오늘날에도 쓰이나, 나머지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는 접미사 ‘-비(輩)’ 자체가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광인=관광자, 관리인=관리자, 동지인=동지자, 망명인=망명자, 망청인=망청자, 우등인=우등자, 위명인=위명자, 전도인=전도자, 디표인=

디표자, 령담인=령담자’는 개화기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어떤 파생어가 新語이고 舊語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어쩌면 두쪽 다 진원지가 다른 명사 어휘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한쪽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대체어휘로 바뀐 경우도 있다.

신문·잡지에서 한자를 노출시킨 경우는 해당 어휘가 신조어일 때인데, ‘푸쥬세庖廚稅’에서 한자를 노출시킨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포쥬(庖廚)’였던 말이 변해서 ‘푸쥬’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朝鮮語辭典』에서도 표제어 ‘푸쥬’에 “庖廚(포쥬)의轉”이라는 관련어 정보를 주고, 원말 표제어 ‘庖廚(포쥬)’에서 의미정보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화기에는 원말인 ‘포쥬’와 변한말인 ‘푸쥬’가 경쟁관계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화기만 해도 원말인 ‘포쥬’가 더 우세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문·잡지는 드물게 변한말일 때도 한자를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금(金)’ 파생 명사 어휘들은 현대국어에서 주로 ‘모으다’와 통합관계를 이루지만, 개화기에는 ‘모으다’보다는 ‘모집하다’와 더 잘 통합하여 쓰였다. ‘器’는 악기 따위처럼 어떤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고, ‘機’는 ‘兵器’였으나(송민 1999:131), 개화기에 오면 ‘器’는 ‘병기’의 의미를 하나 더 가지게 되고, ‘機’는 ‘근대화 이후에 서양 문명을 통하여 새로 알려진 고도의 과학적 장치’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朝鮮語辭典』의 ‘器械’와 ‘機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전에서 ‘器械’의 의미정보로 “兵器”를, ‘機械’의 의미정보로 “機械, 機器”를 삼았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器’와 ‘機’, ‘器械’와 ‘機械’는 동음이의관계에 있다(송민 1999:136). 일본에서 처음에는 news paper에 대한 번역어로 ‘신문지’가 쓰였기 때문에 개화초기 조선수신사들의 기록에는 ‘新聞紙’로만 나타난다. 그 후 한동안 ‘신문지, 신문’이 함께 쓰이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신문’으로 굳어졌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일어난 어휘변화가 국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다(줄고 2004ㄱ:234).

‘-환(丸)’이 배 이름에 붙게 된 경위는 과문한 탓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어의 ‘-丸’에서 차용된 것임만은 분명하다. 오늘날에는 배 이름에 ‘-환(丸)’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환(丸)’은 사라진 차용 파생 접미사인 셈이다. 한편 원래 ‘xx-레식’의 합성어가 널리 쓰였으나, ‘xx-레식’이 점점 절단(truncation) 과정을 겪으면서 ‘xx-식’ 파생 명사가 형성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전에 ‘경축식, 방학식, 상량식, 신혼식, 졸업식, 기교식, 기통식’에 대한 표준어만 등재되어 있다. 개화기 신문·잡지에서도 ‘-론(論)’ 파생어만큼이나 ‘-학(學)’ 파생어들도 고급 전문 어휘로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해당 어휘에 한자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다른 파생어들에 비해 많다. 경우에 따라서 번력 원어까지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개화기의 시사성이 높은 접사와 그 파생어 모두를 다루어보려는 욕심이 결국 기술 내용을 지나치게 단편적·지협적·병렬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필자의 역량 부족과 함께 현재까지 어휘론 논의 방법론의 한계에서 기인한 셈이다. 앞으로는 개화기의 개별 접사와 그 파생어만 대상으로 한 精緻한 어휘 관계의 특징 및 형태론적 특징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개화기의 사회언어학적 의미까지도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앞으로 필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주제어 : 개화기(Modernization Period of Korea), 신조어(coined word), 파생 접사(affix), 파생어(derivative word),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 절단(truncation), 『조선어사전』(Chosun-eo Dictionary), 어휘관계(lexical relation), 유의어(synonymy), 반의어(antonymy), 전문어(terminology)

참고문헌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출판부.
- 박종갑(2001), “주시경 문법의 문법 모형 연구(1)-『國語文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40, 한민족어문학회.
- 박종갑(2003), “주시경 문법의 문법 모형 연구(2)-초기 문법서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43, 한민족어문학회.
- 서상규·한영균(2000), 『국어정보화입문』, 태학사.
- 서재극(1970), “개화기 외래어와 신용어”, 『동서문화』 74, 계명대학교.
- 송민(1999), “器械에서 機械가 되기까지”, 『새국어생활』 9-4, 국립국어연구원.
- 송철의(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한국문화』 3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신중진(2003), “개화기 주요 한글자료를 찾아서”, 『인하어문연구』 6, 인하대학교.
- 신중진(2004ㄱ), 『開化期 新聞·雜誌의 人間 關聯 名詞 語彙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신중진(2004ㄴ), “多義語의 語義變化和 類義關係에 대한 通時辭典 記述 方向 研究-‘기르다/양육하다/치다/키우다’를 통해서-”, 2004년도 사전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원고, 사전학회.
- 신중진(2004ㄷ), “開化期 新聞·雜誌에 쓰인 高頻度 同音異義語 考察”, 『한국문화』 3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병근(2000), 국어 사전의 역사와 그 방향, 태학사.
- 이병근(2001), “서양인 편찬의 開化期 韓國語 對譯辭典과 近代化-한국 근대 사회와 문화의 형성과정에 관련하여”, 『한국문화』 2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Abstract>

The Affixs and Derivative Word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of Korea

Shin, Jung-jin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o the high frequency's prefixs and suffixs that took part in the coined words actively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of Korea. Necessarily as the examples, this paper present a great deal of the derivative word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of Korea, and make mention of their lexical properties. For the purpuse, I refer repeatedly to 『朝鮮語辭典』(Chosun-eo Dictionary) that the lexicon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of Korea was positively reflected in.

This paper introduces to the prefixs “양(洋)-, 신(新)-” and the suffixs “-인(人), -원(員), -비(輩), -자(者), -질, -양(洋), -장(場), -세(稅), -금(金), -비(費), -령(令), -서(書), -기(機), -지(紙), -경(鏡), -업(業), -디(地), -거(車), -환(丸), -선(船), -함(艦), -교(敎), -론(論), -권(券), -권(權), -력(力), -력(曆), -주의(主義), -식(式), -소(所), -당(黨), -계(契), -계(界), -절(節), -일(日), -회(會), -단(團), -가(歌), -가(家), -학(學)”.

신중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2-880-1373(연구실), 019-320-2068

e-mail: sjj304@snu.ac.kr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